

第37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東萊한랑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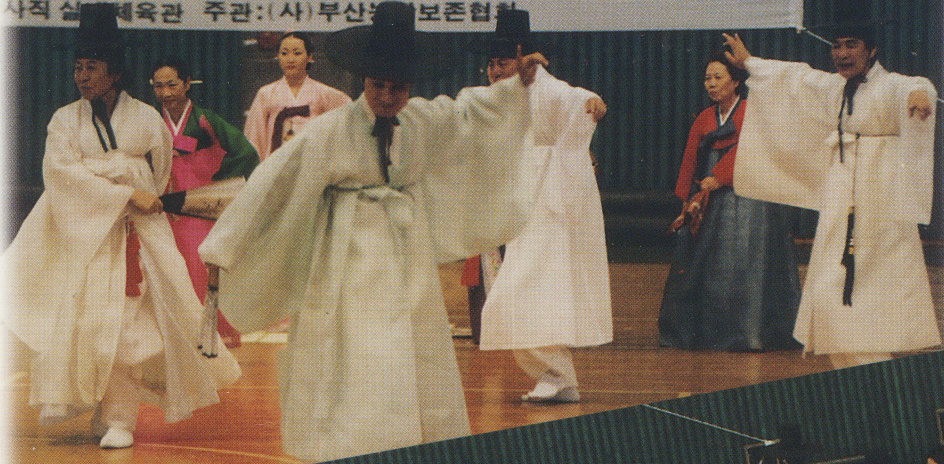
● 장소: 경기도 성남시

● 일시: 1996.10.16~10.18



#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

5.31-6.1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직 삼천체육관    주관: (사)부산민속문화보존협회







## 인 사 말 씀

신흥 명문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성남에서 민족정기와 전통의 맥을 계승하기 위한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성남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민속은 오랜 역사를 통해 조상들의 애뜻한 삶의 애환과 생활의지를 조화와 멋으로 승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의식구조의 변화로 민족의 정서와 멋이 담긴 우리 민속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름답고 훌륭한 민속예술을 계승하기 위해 숭한 역경을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그 맥을 이어 가고 있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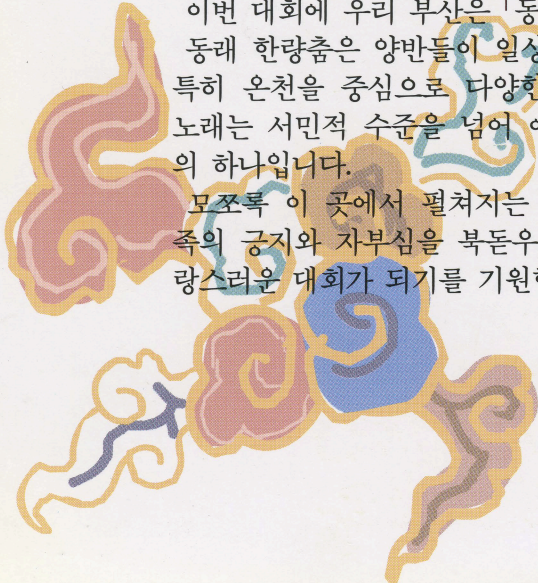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 우리 부산은 「동래 한량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동래 한량춤은 양반들이 일상 생활속에서의 멋과 여유를 즐기며 추는 춤으로서, 특히 온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문화가 발달했던 동래지방에서 행해진 춤과 노래는 서민적 수준을 넘어 예술적 차원까지 도달한 부산지역 대표적인 민속춤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이 곳에서 펼쳐지는 겨레의 큰 잔치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는 자랑스러운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6. 10.

부산광역시장 문 정 수







## 東萊 한량춤의 구성 (소요시간 약20분)

### 1. 입장과 권주가

한량춤이 추어졌던 공간적 배경을 동래 근교의 제실로 잡고 동래의 한량들이 기생들과 함께 제실로 가는 장면과 현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는 장면. 원로한량들에게 축수의 잔을 올리는 권주가의 순서.

### 2. 원로 한량춤

가장 연로한 원로 한량들이 후배들 앞에서 한량춤의 정수를 선보이는 장면.

### 3. 한량들의 군무

원로들의 시범에 고무된 한량들이 모두나와 각자의 춤솜씨를 뽐내며 한바탕 군무를 추는 장면.

### 4. 독무

한량들 중에서 가장 춤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홀로 춤을 추는 장면.

### 5. 대무

독무를 본 두사람의 한량이 나와 역시 그들의 춤을 선보이기 위해 대무를 하는 장면.

### 6. 한량과 기생들의 군무

점점 춤판이 무르익어 놀이에 참가한 한량과 기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군무 장면. 처음엔 기생이 한량을 부추켜 함께 나와 세 쌍의 한량과 기생이 추고, 그다음엔 모든 참가자가 어우러는 춤판으로 구성.

### 7. 성주풀이

고조되어가는 춤판을 더욱 흥겹게 하려는 듯 소리기생이 <성주풀이>로 흥을 돋우고 기생들의 유혹과 교태어린 춤이 이어지며 이에 질세라 한량들도 모두 어울려 성주풀이에 맞춘 덧배기 춤을 춘다.

### 8. 한량들의 장기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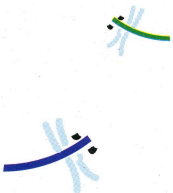
성주풀이로 고조된 굿거리춤의 흥을 자진모리장단으로 더욱 강화시켜 한량들의 장기자랑의 춤순서로 마련된다.

곱새춤, 구불춤, 흥두깨춤, 앓은뱅이춤, 소고춤등 동래지역에서 추어졌던 민속춤이 등장하는 장면.

### 9. 양산도

참가한 모든 한량과 기생들이 나와 <양산도>를 부르며 춤판의 신명을 절정으로 끌어 올리는 흥겨운 마당.

### 10. 인사와 퇴장 : 마무리 장면





## 東萊 한량춤의 형성 배경

옛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면 농경사회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가무를 생활의 일부로 삼아왔음을 알수 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나 농사일의 전후에, 길쌈등 각종 노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의 혼례나 장례등의 가정의례에도 가무가 따랐음을 여러가지 문헌 자료에서 확인 할수가 있다.

노래하고 춤추는 습속은 삼국시대로 부터 출발해서 현대사의 장이 열리기 전인 조선시대 말까지 우리 민중사회의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전통예술의 고장인 동래지방의 풍습속에 이러한 가무가 자리잡게 된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량춤 형성의 배경은 이러한 사회여건과 환경적조건 위에서 그 발생의 토양을 확인 할수가 있고 신분과 계층의 고하를 떠나서 춤추고 노래하며 생활의 리듬을 조율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한량이란 명칭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호반이나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한량춤은 이 한량들이 어울려서 놀이판을 펼치고 풍류를 즐기는 현장에서 추었던 춤을 일컫는다.

한량춤은 민속춤의 범주에 들기는 하나 일반대중들이 즐겨 추었던 춤과는 다소 다른 일면을 보이는 부류의 춤으로 구별된다.

즉, 한국의 민속춤이 서민들의 애환을 표현하거나 억압으로 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는 내용, 혹은 맺힌 한이나 서러움을 풀어내고자 하는 춤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한량춤은 호반이나 양반들이 생활속에서의 여유를 즐기며 추는 춤이며, 그런 배경에 연유한 결과 멋과 흥, 그리고 춤추는 행위 자체의 묘미를 강조한 춤으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동래지방은 예로부터 천연온천지역으로서 각종 놀이문화가 발달했고 그 종류도 다양 했다. 그 가운데서도 춤과 노래를 중심으로한 풍류객들의 놀이는 일반대중의 서민적 수준을 넘어 예술적인 차원에 까지 도달했다.

동래지역의 옛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량춤은 기생방과 같은 실내의 여흥판에서도 추어졌지만 야외의 풍류놀이판에서도 언제나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지금 부산도시고속도로 원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한 (정과정)의 주위에서는 행락철마다 동래지역의 한량들이 모여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겼다고 원로들은 증언한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지역여건은 동래 한량춤의 형성배경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 東萊 한량춤의 특징과 가치

남성무로서의 여유와 함께 마당춤과 사랑방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춤이 특징이다.  
 동작이 크고 거칠며 발디딤이 강하고 내면적인 춤세계 역시 활달함과 우아함이 내재되었다.  
 소박하고 우아한 상징성을 내포하였고,  
 여유와 자제, 자유로움과 흥이 묘하게 어우러진 남성춤이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쇠락되어가는 선비정신의 모태를 이 한량춤의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고 한국인의 선비사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인간회복의 기능은 물론 전통의식의 계승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게 하는 가치를 지닌다.

## 東萊 한량춤의 반주음악 및 무복

동래 한량춤의 반주는 사물(뿡과리, 북, 장구, 징)과 삼현육각의 어울림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태평소와 구름, 민요가 곁들여져 춤판의 분위기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  
 타악과 관악, 현악이 이루어 내는 조화로운 가락과 장단이 바로 한량춤 반주의 특징이다.  
 춤의 의상은 옥색이나 흰색을 애용 하였고  
 합죽선을 펴들고 접었다, 폈다 하며 춤의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부산광역시